

 원자력안전위원회 http://www.nssc.go.kr	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보도일시	2021.6.18.(금) <즉시보도>	담당부서	원자력안전과		
담당과장	김기환(02-397-7281)	담당자	박성준 사무관(7285)		

원안위, 신고리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실시

- 원자력안전위원회(위원장 엄재식, 이하 원안위)는 올해 4월 2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2호기의 임계*를 6월 18일 허용하였습니다.
 - *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,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
 - ※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(원자로 특성 시험)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
-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,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-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(CLP*)의 용접부 및 관통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(1,168개소), 두께측정(52개소) 및 액체침투탐상검사(6개소) 등 1,226개소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 - * (Containment Liner Plate)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판
-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, 이물질 검사결과 총25개의 이물질(슬러지 등)이 발견되어 모두 제거하였으며,
 - 노내핵계측기 안내관 및 안전주입계통 배관 지지대에 대한 확대 점검을 실시하고 건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또한, 이번 정기검사에서 작년 고리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(마이삭, '20.9.3)에 의한 소외전력계통 염해 취약성 관련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.
 - 그 결과, 한수원이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계통 송수전선로 갠트리타워(gantry tower) 애자(磔子, 절연체)의 세정 완료 등 후속조치를 적절히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·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검사한 결과 '적합함'을 확인하였습니다.
-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,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(10개)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.